분단을 가로지른 창작 50년의 여정

- 이호철 문학선집

강 진 호 | 성신여대 교수 · 본지 편집자문위원

이호철은 분단과 분단문학의 대명사이다. 작품과 생활의 양면에서 이호철은 분단 반세기를 온몸으로 헤치면서 분단문학의 큰 숲을 이루었다. 가족과 고향을 북에 두고 월남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비극의 당사자로서, 나아가 분단의 질곡을 몸소 겪어온 역사의 증인으로서, 그의 인생 행로란 현대사의 굴곡만큼이나 파란만장한 것이었다. 그래서 분단이란 그의 전 생애를 지배하는 화두이자 실존적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해 8.15 이산가족 상봉 때 이호철은 꿈에 그리던 귀향 길에 올라 누이동생을 만나 세인의 눈길을 끈 적이 있다. 50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 두었던 상처들이 눈물로 솟아나는 그 통한의 현장에서 이호철이 보여준 모습은 뜻밖에도 너무나 담담한 것이었다. 지난 50년을 묵묵히 견디어 왔듯이 웃음과 격려로 동생을 얼싸 안던 모습이 아직도 강한 영상으로 기억에 남아 있다. 고희(古稀)를 기념하여 출간된 「이호철 문학선집」은 이렇게 견디어 온 작가의 삶과 문학을 총결산한 것. 이호철 작품들을 읽으면서 그 당시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던 것은 애써 눈물을 감추면서 담담하고자 했던 그 이면의 아픔이 선집의 곳곳에서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호철 문학선집」, 전집 못지 않은 무게 갖춰

「이호철 문학선집」은 작가의 삶과 문학을 정리하듯이 장편과 중편, 단편을 비롯한 관련 논문과 평론을 아우른 것으로서 모두 7권으로 간행되었다. 1권에는 대표작인 <소시민>과 <심천도>를 수록하였고, 2권에서는 <문> <물은 흘러서 강>을, 3권에서는 <남녘사람 북녘사람>과 <4월과 5월>, 4권에서는 중 · 단편소설, 5권에서는 단편소설, 6권과 7권에서는 작가론과 작품론을 수록하였다. 주요 작품들이 망라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마지막에 두 권 분량의 연구물들을 수록하여 이호철에 대한 평단과 학계의 관심을 일별할 수 있게 해 놓았다. 형식과 내용면에서 이번 선집은 전집 못지 않은 무게을 갖춘 것이다.

1932년에 함경남도의 원산시 현동에서 이호철은 2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중농 정도의 집안이었고, 조부 밑에서 천자문을 배우면서 비교적 유복한 생활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것

도 잠시, 고등학교 졸업시험이 한창이던 때에 6.25가 발발했고, 인민군으로 동원되어 박격포 중대의 중대장 연락병을 맡는다. 하지만 바로 국군의 포로가 되었고, 얼마 후에는 국군인 자형의 도움으로 풀려난다. 이후 단신으로 월남해 LST를 타고 부산에 들어온 후 부두 노동자, 제면소 도제, 미군부대 경비원 등을 전전하면서 소설 습작을 시작했다고 한다.

이호철의 성격은 스스로 표현한 것처럼 '둔감과 교지'로 정리할 수 있을 듯하다. 작가 주요 연보에서 밝혀 놓은 것처럼, 자신의 기질을 확인한 것은 초등학년 때였다고 한다. 홍수 직후 마을 앞강에서 동갑내기인 6촌 동생과 멱을 감다가 급류에 휘말려 들어간 일이 있다. 이때 이호철은 물 속에서 힘껏 몸을 뒤채어 목을 내밀어 숨을 쉬고는 다시 깊은 물 속으로 들어가는 짓을 되풀이하여 혼자 힘으로 뭍으로 나왔는데 콧구멍에만 물이 조금 들어갔을 뿐 아무 탈이 없었다고 한다. 이 작은 일화를 회상하면서 이호철은 그 뒤 어떤 난국도 뒤에 겪고 나서 생각하면 늘 이런 식으로 감당해왔다고 말하며, 그런 자신을 "천성적인 둔감과 교지가 묘하게 배합된 성격"으로 설명한다. 이 일화에 비추자면 이호철이 남한 사회라는 급류 속을 거슬러 오면서 갖은 곡절을 넘길 수 있었던 것은 얕은꾀를 쓰지 않고 그 속에 뛰어들어 우직하게 감당해 온 특유의 성격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읽는 해박한 지식과 삶에 대한 깊은 통찰력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작가 주요 연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청소년기에 그는 김소월, 임화, 나츠메 소오세키를 비롯한 톨스토이, 고리끼 등을 광범위하게 읽었는데, 특히 고리끼를 위시한 19세기 러시아 민중문학에 깊이 매료되었다고 한다. 또 공산치하에서 북한의 토지개혁과정과 지방의 당조직 결성 과정을 목격하면서 이데올로기와 사람살이의 참뜻을 깊게 자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피난지 부산에 도착하기 전에 그는 이미 세계관이나 역사관이 웬만큼 틀이 잡혀 있었고, 전후 작가 중에서 누구보다도 해박한 사회과학적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 이호철이 긴 창작의 여정에서도 유신정권의 폭압에 맞서 민주수호국민위원회 운영위원, 자유실천문인협의회 대표를 맡는 등의 비판적 활동을 멈추지 않았던 것은 그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이호철이 문단에 첫발을 내디딘 것은 황순원의 추천으로 1955년 <탈향>을 발표하면서부터였다. 이후 이호철은 꾸준히 작품을 발표하면서 분단 현실과 소시민의 일상에 대한 천착을 계속해 왔다.

사회와 인간의 삶을 성찰하고자 한 작품들

이호철의 거의 모든 작품에는 유년의 추억과 젊은 날의 상처들이 음각처럼 각인되어 드러난다. 주위의 올망졸망한 작은 산들을 뒤에서 품고 안정과 균형을 유지해 주었던 마을의 큰산에 대한 기억을 통해서 분단현실을 환기한 <큰산>은 고향 현동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고, <탈향>과 <소시민>은 월남 직후 부산에서 잡역 노동자로 전전했

던 경험을 소재로 쓰여졌으며, <나상>은 친구의 권유로 미군부대 경비원을 그만두고 퇴직금까지 날려버렸던 암담한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남풍북풍>은 천호동에 집을 샀다가 골치 아픈 일에 얽혀들었던 체험을 소재로 한 작품이고, <남녘사람 북녘사람>은 그 동안 가슴속에 묻어 두었던 인민군 복무의 경험을 되살려 쓴 작품이다. 이렇듯 이호철은 자신이 살아온 과정을 즐겨 소재로 활용하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작품이 단순한 개인사의 기록에 머무는 것은 아니다. 개인사를 통해서 민족사의 비극을 환기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와 인간의 삶을 성찰하고자 한 게 이호철의 소설이다.

1권에 수록된 <소시민>과 <심천도>는 이호철을 대표하는 작품들이다. 이호철 소설을 소시민의 일상을 다룬 작품과 분단 문제를 다룬 작품으로 나누어 본다면, 이 두 작품은 전자에 속한다. 6.25 동란 당시 부산 완월동 제면소를 배경으로 거기서 생활하고 있는 10여명의 인물을 그리고 있는 이 작품에서 작가가 주목한 것은 뿌리 뽑힌 자들의 처절한 현실 적응문제였다. 그런데 작가는 이들이 벌이는 다양한 사건들의 얽힘에 시선을 집중하지 않고 대신 그 이면을 투시하여 한층 본질적인 곳을 보고자 한다. 인물들의 부침과 소시민화 과정을 통해서 작가가 궁극적으로 주목한 것은 건전한 비판정신이 사라지고 대신 속물주의가 판을 치는 전후의 일상(日常)이고, 나아가 전후 사회의 구조적 재편과정이다. 곧, <소시민>은 60년대 들어서면서 본격화된 근대화의 열풍 속에서 사회 전반에 만연된 천민 자본주의적 파토스와 소시민 의식의 연원을 6.25로 거슬러 올라가 천착하고,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의 성격을 문제삼는다.

근대화 정책으로 인한 생산량의 증가와 국제정세의 변화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내실없이 외형만을 팽창시켰고, 속물주의와 물신주의의 확산은 분단 극복이라는 민족 최대의 현안마저 외면하는 무심한 세태를 만들었다. 북한 체제에 환멸을 느껴서 월남하였고 어떻게든 남한 사회에 새로운 삶의 둥지를 틀고자 했던 이호철은 이 척박한 현실의 연원이 6.25라는 동족상잔의 전쟁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날카롭게 갈파해내고 있다. 6.25가 한국 사회에 남긴 것은 국토의 황폐화나 인명의 살상과 같은 물량적인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건전한 비판정신과 미래에 대한 꿈을 앗아갔다는 점, 일견 평범한 듯한 이 주제를 집요하게 천착한 작품이 <소시민>이다. 그래서 이 작품은 "한 시대가 가고 새 시대가 오는 전환기적 변동상을 담아 내고 있다"(정호웅)는 평가와 함께 "소시민적 일상과 그 한계를 점검하고 그것을 넘어선 삶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모색한 작품"(백낙청)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 것이다.

새삼 문단과 통일을 생각하게 하는 선집

<심천도>는, <소시민>의 뒤를 잇는 속편 격의 작품으로, 동일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심천도>의 이원형은 <소시민>의 '정씨 나' '그 아들'의 정신을 고스란히 계승한 인물로, 속물화된 현실에 맞서는 4.19 정신의 체현자로 나타난다. 작가는 이 인물을 통해서 타성과 안일주의에 젖어있는 공무원 사회를 비판하고 보다 내실 있는 산업화 정책의 추진을 소망하는데, 이는 4.19가 한국사회의 근대화 과정에서 그 실질을 가늠하는 방향추와 같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원칙과 실제 사이에서 방황하던 주인공이 원칙을 고수하면서 사표를 낸다는 것은 타락한 사회와 타

협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이자 곧, 파란 많은 현대사를 온몸으로 헤쳐온 작가 자신의 지혜와 신념에 다름 아닌 것이다. 그렇기에 이 작품은 작가의 신념을 원형의 상태로 보여준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또 이 작품은 아직도 공무원 사회에서 목격되는 다양한 인간 군상들을 실감나게 포착해내고 있다. 타성에 젖은 민 과장, 출세주의자인 김 사무관, 보신주의자인 구 사무관, 원칙주의자인 이 주사 등 실로 다채로운 인간 군상들이 갈등하고 대립하는 양상이란 관료주의라는 완고한 성채에 갇혀있는 공무원 집단의 실체를 생동감 있게 보여주고도 남음이 있다. 물론 작가의 의도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장황하고 사변적인 문체가 남발되고, 사건의 전개가 약화되는 등의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본질을 구경(究竟)까지 파고드는 집요한 탐구와 분석력을 통해 1960년대 소설사에서 사실주의 정신을 심화하고 궁극적으로 민족 현실에 대한 문학적 탐구를 심화한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호철이 이처럼 사회 현실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남과 북을 모두 체험한 그의 독특한 처지와 무관하지 않다. 청소년기에 겪은 인민군 생활과 월남 후 사회의 밑바닥에서 목격한 남한 사회의 실상, 거기다가 소련문학과 사회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교양체험 등은 그의 시야를 어느 한 곳에 편벽되지 않게 만들어 놓았다.

<판문점>에서 볼 수 있는 남북한의 이질화에 대한 고발은 이런 균형감각으로 해서 가능했던 것이다. 신문사 기자의 눈을 통해서 분단의 현장인 '판문점'을 둘러보고, 분단된 현실을 망각하고 점차 소시민적 삶에 젖어드는, 이질화 현상을 날카롭게 포착해 낸 것은 분단 현실을 그만큼 냉엄하게 직시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런 냉철한 시각을 바탕으로 작가는, 먼 훗날 돌아보자면 '판문점'은 우스꽝스러운 박물관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진술을 통해서 분단 극복의 의지를 강하게 내비춘다.

> 2백 년쯤 뒤 판문점이란 고어로 '板門店'이 될 것이다. (…) 그때 백과사전에는 이렇게 쓰일 것이다. 1953년에 생겼다가 19xx년에 없어졌다. 지금의 개성시의 남단 문화회관이 바로 그 자리다. (…) 회담 장소였다. (…) 그 회담 기록이 적힌 거창한 문건이 지금 인류 역사의 기념비적인 익살로서 개성 박물관에 안치되어 있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
> <판문점> 中에서

이호철 눈에는 판문점이란 기껏 "인류 역사의 기념비적인 익살"에 지나지 않았던 것.

이호철이 예견한 '19xx년'이 지났고 이제 21세기의 한 복판으로 우리는 서서히 다가서고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위의 진술은 아직 유효하다. 작가의 말대로 "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고 "민족의 에너지를 쓸데없이 좀먹는 일"인가. 이호철이 꿈꾸는 판문점이 박물관으로 새단장할 날은 과연 언제 올 것인지.

「이호철 선집」을 읽으면서 새삼 분단과 통일을 생각한다.

강 진 호 고려대 졸업, 문학박사
주요저서 「한국근대문학 작가연구」
「한국문학, 그 현장을 찾아서」
「탈분단시대의 문학논리」 등
현재 본지 편집자문위원, 성신여대교수